2021년 7월 개원
신세계요양원
061-395-2580 장성읍 방울샘길 12 (장성읍 영천리 1493-5)

호남신문

호남신문 자매지
국민복지신문
2010년 8월 30일 창간

(대표전화) 062-229-6000 1946년 10월 26일 창간 i-honam.com 제 3181호 (음력 6월 6일) 2021년 7월 15일 목요일

"목숨을 걸어 지키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 진실이다"

광주·전남 찜통더위 이어진다

'장성 33.6도' 광주기상청, 지난 11일 이후 폭염 특보 발령

장마전선 물러간 뒤 무더위·열대야 내일까지 이어질 듯

장마 전선이 물러간 광주·전남에 나흘째 찜통 더위가 이어지고 있다.

14일 광주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낮 최고기온은 장성 33.6도, 광양 광양읍 33.3도, 곡성 옥과 32.8도, 광주 과기원 32.6도, 영광 31.9도, 해남 31.5도, 강진·광주 31.4도, 고흥 30.6도 등을 기록했다.

광주와 전남 22개 전 시·군에는 폭염 특보가 지난 11일 첫 발령 이후 나흘째 유지되고 있다.

광주와 전남 9개 시·군(순천·광양·나주·화순·담양·구례·곡성·영광·함평)에는 폭염 경보가 내려져 있다. 나머지 전남 13개 시·군에는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이다.

기상청은 장마 전선이 물러간 뒤 북태평양 고기압 영향을 강하게 받으면서 오는 16일까지 무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 기간 중 낮 기온은 32도 이상으로 높겠으며, 습도까지 높아 체감온도는 내륙을 중심으로 35도 안팎이 될 것으로 낮동안 오른 기온이 식지 않으면서 밤사이 열대야가 나타나는 지역도 있겠다.

다만 15일 오후엔 대기불안정 영향으로 일부 내륙에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오는 곳도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5~40㎜다.

기상청 관계자는 "여름철 폭염이 이어지면서 건강 관리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노약자는 낮 시간대 외출을 가급적 삼가하고 수분을 많이 섭취해야 한다"며 "농작물·수산물 등 피해도 우려되는 만큼 미리 대비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기동취재본부

'무더위에 청연루 그늘 아래 휴식 취하는 시민들' 연일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14일 전북 전주시 전주한옥마을 남천교 청연루에서 시민들이 더위를 피하며 휴식을 취하고 있다.

광주·전남경찰, 다음달 말까지 휴가철 음주운전 집중단속

광주·전남경찰청은 15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여름 휴가철 음주운전 집중단속을 벌인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은 야외 활동·교통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피서지 주변과 유흥가를 중심으로 음주 단속을 강화한다.

지역 이동 술자리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주요 고속도로 진·출입로 음주 단속도 함께한다.

특정 장소에서 30~40분가량 음주 측정한 뒤 다른 장소로 옮겨가는 이른바 스폿(Spot) 방식 단속도 벌인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마스크·장갑을 착용하고, 비접촉 음주 감지기를 활용한다. 음주운전 근절 홍보 활동도 벌인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을 근절할 수 있는 성숙한 문화 정착에 앞장서 달라"고 강조했다.

기동취재본부

금·토요일 쉽니다 홈페이지 i-honam.com

수습·경력기자 모집

"지역언론의 선봉장인 호남신문에서 재능있는 인재를 모집합니다"

▶모집부문·인원 : 수습·경력기자 0명 ▶지 원 기 간 : 채용시까지
▶지 원 자 격 : 학력·나이제한 없음 ▶전 형 방 법 : 1차 서류전형-2차 면접
▶제 출 서 류 : 이력서(사진 부착)·자기소개서 각 1부
▶접 수 방 법 : 등기 우편 접수 또는 이메일 (ihonam@naver.com)
▶접수처 : 광주 서구 운천로 213 스카이랜드 309호 (문의전화 : 062-229-6000)

호남신문

광주시, 개인택시 면허 양수 진입장벽 낮춰

영업용 무사고 3년→2년6개월·비영업용 6년→5년으로 완화

광주지역 운수종사자들의 개인택시 면허양수가 보다 쉬워지게 됐다.

14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전날 광주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인택시면허 사무취급 규정을 개정,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양수 시 필요한 조건을 완화했다.

무사고 운전 요구경력을 법인택시와 시내버스 등 영업용차량 운수종사자는 기존 3년에서 2년6개월로, 회사 통근버스와 배송차량과 같은 비영업용차량 운수종사자는 기존 6년에서 5년으로 완화했다.

이와 함께 운수종사자가 아닌 일반인도 무사고운전 5년 이상이면 개인택시 양수자격을 올해부터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지난 1월1일부터 경찰청 운전경력증명서상 무사고 운전경력 5년인 일반인이 한국교통안전공단의 40시간 관련교육을 이수하면 개인택시 면허 양수조건을 갖추게 된다.

양수희망자는 교육이수증, 양도양수계약서 등을 지참해 양수자 주소지 관할구청에 개인택시면허 양수인가를 신청하면 개인택시를 취득할 수 있다.

일반인 무사고 5년 인정 제도가 올해 신설됨에 따라 형평성 차원에서 운수종사자도 영업용 운수종사자는 2년6개월, 비영업용 운수종사자는 5년으로 낮춰 개정했다.

백정엽 시 대중교통과장은 "일반인의 개인택시면허 양수조건 완화와 운수종사자의 무사고 경력요건 완화로 개인택시업에 대한 진입장벽이 낮춰질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기동취재본부

전남산림자원연구소 동백나무 잎 기능성 특허출원

일반 차류보다 항산화기능 10~30%↑

전남산림자원연구소는 전남에 분포하는 난대수종인 동백나무 잎의 기능성을 증진하는 가공처리 기술을 밝혀내고 이를 특허출원 했다고 14일 밝혔다.

완도 자생의 건조한 동백 잎을 덖음 처리한 결과 일반 차류보다 폴리페놀과 항산화기능이 10~30% 이상 높게 나타났다.

떫은 맛을 내는 탄닌산과 카테킨 성분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이를 활용한 음료 제품 개발 시 맛과 기호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또 덖음 가공처리한 동백 잎의 항암효능을 실험한 결과 두경부암세포 억제효과가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동백 잎은 천연 원료로서 부작용이 적어 안전한 치료제 공급원으로 쓰일 전망이다.

이번 연구를 통해 동백잎을 활용한 다(茶)류, 건강식품 등 식품 분야로 활용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김정환 기자